

초·고등 공교육비 15년새 12배

95년 한국 교육지표 내용

13살기준 학급당 학생수 49명..뉴질랜드 3배

오름 기자

교육개발원이 조사한 '95년도 한국의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현실은 전반적으로 낡아지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까지는 아직 먼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 학생 1인당 교육비

중앙·지방정부 등이 부담하거나 납입금 등 학부모와 학생이 부담하는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95년 기준으로 초등 1백41만2천원, 중학교 1백38만원, 고교 1백77만7천원, 대학 4백22만7천원으로 80년에 비해 초등과 고교는 12배, 중학교는 8.8배, 대학은 4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선진국의 경제협력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의 평균과 비교하면 초등은 43.7%, 중등은 3분의 1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미치며, 고등교육은 54%에 불과한 수준이다.

과외비·학원비 등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94년 기준으로 유치원 1백24만1천원, 초등 1백35만원, 중학교 1백35만2천원, 일반고 1백75만9천원(실업고 1백만4천원), 대학 2백38만1천원으로 82년보다 유치원은 12.5배, 초등은 10.5배, 중학교는 9.4배, 일반고는 7.7배, 대학은 3.5배 가량 늘어났다.

◇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는 65년 65.4명에서 95년 36.4명으로 30년 동안 약 29명, 중학교는 60.7명에서 48.2명으로 12.5명, 일반고는 59.8명에서 48명(실업고 53.5명에서 47.9명)으로

11.8명이 줄었다. 그러나 13살 학생의 학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은 49명인 데 반해 일본은 학급당 31명, 미국 23명, 캐나다 25명, 영국 22명, 프랑스 25명, 독일 27명, 뉴질랜드 16명, 이스라엘 32명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원 1인당 학생수

초등학교는 65년 62.4명에서 95년 28.2명으로 30년 동안 34.2명이, 중학교는 39.4명에서 24.8명으로 14.6명이, 일반고는 32.5명에서 22.1명으로 10.4명이 줄었다.

그러나 전문대는 65년 26명에서 95년 54.9명으로, 대학은 19.9명에서 26.3명으로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은 22.1명이다.